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보다 나은 정부

2019년 8월 2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8월 1일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8. 1(목)	담당부서	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
담당과장	이승헌 과장(02-2100-1373)	담 당 자	이수연 사무관(02-2100-1379)

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제8차 회기간 장관회의(북경 8.2-3) 개최

- 유명희 본부장,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국제공조에 주력 -

□ **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** 제8차 회기간 장관회의가 8.2(금)~8.3(토)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며, 우리나라는 **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**이 참석한다.

○ 금번 회의에서 유 본부장은 각국 장관들과 **그간의 협상 진행상황을 점검**하고, **시장접근 및 주요 규범 분야**에서 **연내 타결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**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.

□ 특히, 이번 장관회의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**아시아, 태평양 지역 16개국의 통상 장관이 처음으로 한 자리**에 모이는 계기가 될 것인 바,

○ 정부는 **일본의 수출규제**가 **국제무역규범 및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추구하는 역내 무역자유화를 저해**하고, 아태지역 **밸류체인을 훼손**하여 **참가국 모두에게도 피해가 발생**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이승헌 과장(☎ 02-2100-137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RCEP 협상 경과 및 의의**

1. 협상 경과

□ 2012. 11. 20 동아시아 정상회의(EAS) 계기 **RCEP 협상개시 선언**

□ 2013. 5월 협상개시 후 **26차례 공식협상** 및 **13차례 장관회의** 개최

□ 2018. 11. 14 제2차 RCEP 정상회의에서 **2019년 타결목표** 설정

* RCEP(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) : 아세안(ASEAN) 10개국 및 한국, 중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·태지역 메가 FTA

** 참고 : 총 20개 챕터 중 현재까지 협력·중소기업·통관·SPS 등 총 8개 챕터 타결

2. 협상구조

RCEP 장관회의 (RCEP Ministerial Meeting)	수석대표회의(TNC) 합의사항 추인 및 주요 결정사항 논의를 통해 RCEP 협상의 모멘텀 부여 * 아세안 장관회의와 연계하여 개최
수석대표회의 (**TNC** : Trade Negotiating Committee)	주요 결정사항 논의, 각 작업반에 지침 제시, 각 작업반은 회의 종료 후 TNC에 결과 보고
작업반(9) 및 소작업반(7) (Working(Sub-working) Groups)	**(작업반)** 상품, 서비스, 투자, 지식재산권, 법률제도, 전자상거래, 정부조달, 경제기술협력, 경쟁 **(상품 소작업반)** 무역구제, 원산지, 통관, SPS, STRACAP (=TBT) **(서비스 소작업반)** 금융, 통신

3. 의의 및 기대효과

□ **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GDP의 3분의 1*을 차지**하는 거대 경제블록으로 RCEP 체결시 안정적인 교역·투자 기반 확보 기대

* RCEP 對세계비중('18년, IMF): GDP 27조불(32%), 인구 36억명(48%), 교역 11.5조불

□ 상대적으로 **경제성장률*이 높고 젊은 인구 비중도 높아** 미래 유망시장**

* '18년 성장률(IMF): 中 6.6% / 印 7.1% / 베트남 7.1% vs 美 2.9% / 유로존 1.8%

** 중위연령('17, UN): 인도 26.7세, ASEAN 29.2세 vs 한국 40.8세 일본 46.3세, 미국 37.6세

□ 원산지 규범 통일 등으로 우리기업의 **역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활성화**

◈ RCEP 체결 시 **경제적 기대효과**('12, KIEP)

- **(실질 GDP)** 10년간 **1.21~1.76%** 증가, **(소비자 후생)** 10년간 **113.51~194.56억 달러** 증대